

여중생의 신체 인식에 따른 착의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

위 은 하 · 박 우 미**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광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ctual Clothing Style of Middle school girls According to Self-perception of Their Body Size

Wee, Eunhah* · Park, Woom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body size on actual clothing style in middle school girls. To achieve this, this study analyzed self-perception of body size, aspired clothing style, and actual clothing style. By classifying groups into thin and thick, the difference in clothing style according to groups was also analyze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iddle school girls in Gwangju and 219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real body measurement and questionnaires. WIN SPSS+ 10.0 package was used to obtain results.

Results are as follows:

1. For the self-perception of body size, middle school girls perceived much thicker in the lower body than the upper body. And they were unsatisfactory about the lower body which was perceived thick.
2. In the correlation of actual and aspired clothing style of middle school girls, they wore a aspired clothing style actually. Their actual or aspired upper clothing style was to cover the skin, exposing or covering a body silhouette. Their lower clothing style was a slacks type that covers a body silhouette and the skin.
3. In selecting actual clothing styles, middle school girls were somewhat affected by self-perceived body size. But they did not prefer the clothing styles perceived thick in girth or big in width in exposing the skin or a body silhouette. On the other hand, as it was perceived long, wearing was increased.
4. In the difference of actual clothing styles in thin/thick groups, middle school girls of the thin group more

frequently wore the upper and lower clothing styles of exposing the skin or a body silhouette than the thick group. But both groups wore the clothing styles of covering the skin or a body silhouette regardless of their thinness and thickness. And when wearing the clothing style of exposing neck and shoulder, middle school girls considered actual body size more than self-perceived size. On the other hand, when wearing the clothing style of exposing arms and silhouette by fitted legs, they considered self-perceived body size more.

주제어(Key Words) : 신체인식도(self-perception of body size), 실제착의의복형태(Actual clothing style), 희망 착의의복형태(Aspired clothing style), 여중생(middle school girls)

I. 서 론

미디어의 발달로 시각문화의 가치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아름다움의 이상을 자신의 외모에서도 발견하고 싶어 한다. 특히, 의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 의복-인체 구조(Apparel-Body Construct)가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매력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는다. 더욱이 인터넷과 패션잡지들에 보이는 마르고 서구화된 모습의 여성의 신체는 우리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이 된지 오래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象)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포함하며 신체크기,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 및 의복과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를 결정하는 신체의 다른 면들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Rudd & Lennon, 2001). 또한 신체이미지는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는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를 말하며,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신체이미지는 섭식장애,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및 의복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Keeton 등, 1990, 김재숙, 이미숙 2001 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자기 개념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여자들은 신체적 자아개념이 매력에 대한 신체지각과의 상관성이 높고 반면에 남자들은 신체적인 적합도

나 효율성에 대한 지각과 상관성이 높은 것이 남녀간에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권기덕, 1995). 그리고 남녀가 같은 몸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여자들에게 더 큰 고민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여자들의 신체이미지에서 그들이 신체형태(외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Muth, J. L. & Cash T. F., 1997). Marble, Balance and Galgan(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미만이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중보다 15%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신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남, 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윤자, 이승희(2001), 박우미(2000)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보다 마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인지에서는 더 뚱뚱한 것으로 인지하고 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극도의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감을 넘어서 심지어 죄의식까지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로 자신의 변화된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의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태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윤진, 1993)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매우 감각적이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며(한상철, 1998),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자아개념이 불확실한 시기이므로 자신이 이상적 또

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자신의 신체특징의 인식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실제이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열등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적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신체 및 성적 발육이 또래 집단과 다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때(조숙, 만숙)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조숙, 남자는 만숙이 더더욱 문제가 되기도 한다. Williams와 Currie(2000)의 연구에서는 11세의 조기성숙한 여학생들이 신체이미지와 자기 존중감을 낮게 평가하고, 13세에서는 늦은 성숙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초라하게 지각하고 자기 존중감을 낮게 평가하였다. 여학생들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로 유방돌출을 시작으로 초경과 음모의 발생, 성대의 변화 등을 경험하고, 또한 성인 키의 98% 정도까지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감소됨과 동시에 체지방조각이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김은경, 외4 2004). 체중조절은 청소년 여학생의 큰 관심사인 반면, 체중조절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체중이 적절하거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다(홍은경 외3, 1997).

자신의 실제체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나름대로 전체뿐 아니라 신체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갖고(정옥임, 1993) 불만족한 부위에 대해 끊임없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적인 체형에 관한 사회적 기준과 육체적 매력의 기준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나 그에 따른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준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만족도(Lavat & Delong, 1990)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신체만족도는 실제측정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나타낸다(정재은, 남윤자, 1999).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중 인지체형과 관련이 더 깊으며(남윤자, 이승희 2001; Douty, Brannon,

1984; Lennon, 1988) 착의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착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보면 체형의 매력이 낮아질수록 의복이 갖는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여유가 있어 체형이 은폐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박우미, 고유미, 1994). 이렇게 의복의 실루엣 중에는 체형을 그대로 표현하는 디자인도 있지만 체형실루엣을 감추는 형태도 가능하다. 청소년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며 또 감추고 싶어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부위의 인식은 실제 착의 의복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희망착의 의복형태와 실제착의 의복형태의 차이는 있는가? 주관적, 객관적 수척/비만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 착의 의복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므로써 착의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II.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중생의 신체 크기인식이 실제 착용하는 의복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여중생의 신체크기의 인식도 수준은 어떠한가?
- 2) 여중생의 실제 착의의복형태와 희망 착의의복형태는 무엇인가?
- 3) 여중생의 신체부위 인식도와 실제착의의복형태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4) 여중생의 객관적, 주관적 수척/비만 집단분류별 실제 착의의복형태의 차이는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자는 광주소재의 2곳의 중학교 2, 3학년 239명의 여학생이었다. 조사기간은 2004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제계측과 설문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내용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218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와 Size Korea의 자료

(단위: Cm)

Items	Real body size		Size Korea	
	Mean	SD	Mean	SD
가슴둘레	81.83	6.26	80.3	5.66
허리둘레	66.70	9.70	65.79	6.56
배둘레	74.67	12.67	71.97	7.30
엉덩이둘레	88.96	6.88	88.38	5.95
넓적다리둘레	45.72	5.78	46.73	4.64
위팔둘레	25.86	5.98	24.51	2.84
어깨점사이길이	37.92	6.32	39.50	2.55
팔길이	53.96	3.68	52.92	2.50
다리길이	95.63	7.34	98.84	3.98
신장	159.76	5.21	158.88	6.29
체중(kg)	50.89	7.90	51.87	7.98
로허지수	125.29		129.33	

의 신체치수는 Size korea(<http://sizekorea.ats.go.kr>)의 13-14세 여학생의 자료의 평균과 비교해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3. 설문내용과 실제계측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도구는 신체인식도와 만족도의 경우 Labat K.L. & DeLong M.R. (1990)의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를 묻는 문항은 박재경, 남윤지(1999)의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1) 신체 인식도 - 자신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를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표 2).
- 2) 실제 신체치수 -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신장과 체중을 계측하고 줄자를 이용하여 둘레치수 6항목, 길이치수 3항목, 지수 1항목으로 총 12항목(표 1)을 계측하였다.
- 3) 실제 착의의복 형태 -20 종류의 착의의복스타일(표 3)의 실제 착용정도를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 4) 희망 착의의복 형태-20 종류의 착의의복스타일(표 3)의 희망 착용정도를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인체 측정 자료와 설문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각 내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신체인식도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둘째, 여중생의 실제착의의복형태와 희망착의의복형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최빈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여중생의 신체인식도와 실제착용의복형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여중생의 로허 지수에 따른 수척/비만 객관적 수척/비만유형과 주관적 수척/비만인식유형별 실제착용의복형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행하고 사후분석으로 Duncan-test를 실행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여중생의 신체 크기 인식과 만족

여중생들의 신체 인식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 각 부위의 17항목에 대한 크기 인식의 정도와 만족의 정도

를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부위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과 최빈치 외에 왜도(좌우의 치우침)와, 첨도(분포치의 집중도)수치를 구하여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왜도는 분포의 편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와 유사한 대칭 모습을 보이고, (+)값은 오른쪽 꼬리분포를 보이고, (-)값은 왼쪽꼬리분포를 보인다. 첨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한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값은 정규분포보다 좁게 밀집되어 뾰족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값은 그 반대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기(3.54, 4), 체중(3.23, 3)항목에 있어 크거나 굵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가슴크기는 작고,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의 길이는 짧으며 키는 작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신체부위별 인식은 상체보다 하체에서 '굵다'는 인식이 편중되어 있으며 굵게 인식하는 부위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가슴크기,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였으나 신체만족도는 낮은 신체부위 항목이었다.

그리고 여중생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이 2.65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체 만족도가 낮은 항목별들을 살펴보면 다리의 굵기(2.14, 2), 아랫배의 돌출정도(2.34, 2), 체중(2.43, 2), 팔의 굵기(2.57, 2), 엉덩이둘레(2.39, 3), 허리둘레(2.58, 3) 등이었다. 이 항목들은 왜

표 2. 여중생의 신체 크기 인식과 만족

구 분	신체인식도						신체만족도						상관관계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얼굴의 크기	3.15	3	-.025	.172	-.082	.342	2.75	3	-.116	.172	-.545	.342	-.700***
목의 길이	3.02	3	.035	.173	1.664	.344	3.12	3	-.106	.172	.804	.342	.374***
어깨너비	3.04	3	.137	.172	.137	.342	3.00	3	-.169	.172	.890	.343	-.573***
어깨경사각도	2.99	3	-.529	.172	1.760	.342	3.03	3	-.187	.173	1.582	.344	-.152*
가슴의 크기	2.84	3	.073	.172	-.598	.343	2.71	3	.038	.172	-.242	.343	.190*
가슴둘레	2.92	3	.039	.172	-.409	.342	2.74	3	-.026	.172	-.394	.342	.152*
허리둘레	3.09	3	-.190	.172	-.530	.342	2.58	3	.263	.172	-.518	.342	-.713***
허리의 잘록함	2.85	3	.141	.173	-.247	.344	2.65	3	.217	.173	-.520	.344	.554***
아랫배의 돌출정도	3.44	4	-.519	.173	-.395	.344	2.34	2	.442	.173	-.422	.345	-.725***
엉덩이둘레	3.49	4	-.310	.172	-.434	.342	2.39	3	.165	.172	-.393	.342	-.496***
팔의 굵기	3.13	4	-.236	.172	-.767	.343	2.57	2	.218	.172	-.697	.343	-.668***
다리길이	2.90	3	.089	.172	-.131	.343	2.64	3	2.067	.172	14.307	.343	.450***
다리굵기	3.53	4	-.564	.173	.003	.344	2.14	2	.676	.173	.070	.345	-.655***
프로션	2.75	3	.172	.173	.328	.344	2.80	3	11.589	.173	15.260	.345	.131
신장	2.92	3	-.131	.172	-.671	.342	2.71	2	.225	.172	-.596	.342	.652***
체중	3.23	3	-.175	.172	-.612	.342	2.43	2	.365	.172	-.438	.342	-.645***
비만도	3.01	3	-.108	.172	-.862	.343	2.79	3	.230	.172	-.533	.343	-.681***

* p<.05, **p<.01, ***p<.001

여중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평균 3.08, 최빈값 3:이하생략)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각 부위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얼굴크기(3.15, 3) 아랫배의 돌출정도(3.44, 4), 엉덩이둘레(3.49, 4), 다리 굵

도가 (+)값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오른쪽 꼬리분포를 나타냈으며(이것은 만족도가 낮은 평균치에 빈도가 높음을 말한다) 첨도값은 다리길이, 프로션의 경우 첨도값이 아주 높아 평균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슴크기는 작

표 3. 여중생의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희망 착의 의복형태

착 의 의복 형태	실제 착의의복형태				희망 착의의복형태				실제-희망 착의 의복형태의 상관관계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	
1) 목둘레가 높은 상의	2.37	2	.186	-.614	2.28	2	.276	-.312	.546**
2) 파입이 큰 목둘레의 상의	2.71	3	.000	-.380	2.75	3	-.014	-.139	.515**
3)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	1.79	1	.998	.458	1.87	2	.679	-.218	.578**
4)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1.99	1	.440	-.777	1.73	1	.776	-.122	.503**
5)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 된 상의	3.06	3	-.253	.188	3.48	3	-.293	-.657	.461**
6) 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2.36	3	.276	-.484	2.41	2	.332	-.626	.558**
7)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3.10	3	-.253	-.428	2.79	3	.229	-.546	.612**
8)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	2.43	2	.399	-.504	2.40	2	.466	.093	.562**
9)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2.54	3	.229	-.712	2.41	2	.412	-.027	.389**
10) 허리부분 전 후길이의 짧은 상의	2.74	3	.043	-.690	2.92	3	-.181	-.757	.631**
11)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	2.31	2	.673	-.379	2.32	1	.653	-.227	.619**
12) 몸통하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의	1.95	1	.639	-.220	1.89	1	.581	-.417	.549**
13) 상의 밑으로 넣은 하의	2.30	1	.451	-.729	2.51	3	3.047	23.455	.679**
14) 밑위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을 슬랙스	2.57	3	.252	-.785	2.64	3	.076	-.873	.519**
15)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	1.73	1	1.173	.581	1.94	1	.901	.024	.630**
16)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반바지	1.90	1	.843	-.128	1.97	1	.851	.180	.581**
17)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랙스	1.89	1	.795	.228	1.95	1	.793	.150	.523**
18) 다리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랙스	3.04	3	-.222	-.780	3.21	3	3.443	31.310	.532**
19)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	2.01	1	.871	.216	2.44	2	.437	-.365	.528**
20) 밑위길이가 긴 슬랙스	3.08	3	-.090	-.278	3.07	3	-.042	-.017	.673**

* p<.05, **p<.01, ***p<.001

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허리의 잘록함은 잘록하다고 인식하였으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보통에 가깝다고 인식하나 만족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여중생들의 신체 인식도와 신체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1% 유의수준에서 부적상관인 항목이 많았다. 상관계수가 .5이하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얼굴 크기, 어깨너비, 허리둘레, 아랫배의 돌출정도, 엉덩이둘레, 팔의 굵기, 다리 굵기, 체중, 비만도 등의 항목은 크거나 굵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신체만족도도 낮아지는 부적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다리길이, 허리의 잘록함은 크거나 길고, 잘록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여중생들은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아랫배, 엉덩이둘레, 다리굵기, 체중 등 상반신보다 하반신에 대해 굵다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통보다는 위팔둘레나 다리굵기 등 사지부에 대해 더 굵다고 인식하였으며 만족도도 낮았다. 그리고 보통이거나 잘록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여중생들의 신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여중생의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

다음으로 여중생들이 자신이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와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 그리고 실제-희망 착의 의복형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것들의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 상관관계의 값은 표 3. 과 같다.

1) 여중생의 실제착의 의복형태

여중생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의 착의 빈도의 평균은 1.73-3.10에 분포하였다. 실제착의 의복형태 중 착의 빈도의 평균이 3.0 이상인 의복형태를 살펴보면 몸통 상부

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3.10), 어깨가 좁아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3.06), 밀위길이가 긴 슬렉스(3.08), 다리 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렉스(3.04) 등이 가장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왜도 값도 - 쪽으로 치우치는 실제로 가장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들이었다. 그 외에 평균치는 낮으나 최빈치가 3.0 이상으로 주로 착용하는 의복형태는 파임이 큰 목둘레의 상의, 몸통 상부에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허리부분 전 후 길이의 짧은 상의, 밀위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는 슬렉스 등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착의 빈도가 평균 2.0이하의 의복형태는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1.73),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1.79),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실루엣이 드러나는 슬렉스(1.89),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반바지(1.90) 등이었다.

이와 같이 여중생들은 주로 상의와 긴 슬렉스를 착용하는데 상의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밀착여부에 관계없이 착용하며 슬렉스는 밀착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여유가 많은 긴 슬렉스를 실제로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특성과 힙합스타일의 유행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2) 여중생의 희망착의 의복형태

다음으로 여중생들이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를 살펴보고 평균, 최빈치, 왜도, 첨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여중생들이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의 착의빈도평균은 1.73-3.48의 분포를 보였다.

여중생들이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의 착의희망빈도가 3.0이상인 의복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깨가 좁아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3.48), 다리 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렉스(3.21), 밀위길이가 긴 슬렉스(3.07)였다. 그 외 평균은 낮으나 착의 희망빈도의 최빈치가 3.0 이상인 의복형태는 허리부분 전·후길이의 짧은 상의,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파임이 큰 목둘레의 상의, 상의 밑으로 넣은 하의, 밀위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는 슬렉스 등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였다.

여중생들이 착의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의복형태를 착의

희망빈도의 평균이 2.0이하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깨가 넓어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1.73),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위 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1.87), 몸통하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의(1.89),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스커트(1.94), 반바지(1.97),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렉스(1.95) 등이었다.

이와 같이 여중생들은 노출이 심한 상의의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며 하의는 노출되거나 밀착되는 의복형태의 착의를 희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대생들과 다르게(박재경, 남윤자, 1999) 여중생들은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가 거의 비슷하였다.

3) 여중생의 실제-희망 착의 의복형태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여중생들의 실제-희망 착의 의복형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도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대 이후의 여대생들의 의복착용행동과는 달랐다. 여대생들은 신체에 밀착되고 노출이 큰 의복형태의 착용을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용하지 않는다(박재경, 남윤자, 1999)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제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0.389-0.679의 분포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깨가 좁아보이는 상의는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였으며 착의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의복형태였다. 그리고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와 반바지, 그리고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렉스는 실제로 착용하지도 않지만 착용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도 아니었다.

다음으로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희망착의 행동 점수에서 실제 착의 행동 점수를 뺀 값(표 4.)을 통하여 착의 행동을 고찰하였다. 희망착의 의복형태와 실제 착의 의복형태의 차에 대해 그 특징이 큰 의복형태별로 평균과 최빈값을 구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3에서 3까지 7단계의 분포를 갖으며 +값은 착의하기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의하지 못하는 경우, 0은 착의 희망여부에 따라 실제 착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값은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착

표 4. 여중생의 실제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의 관계

착의 의복 형태	(희망착의 의복형태- 실제착의 의복형태)						
	-3	-2	-1	0	1	2	3
19)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	0	6	18	97	54	16	9
15)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	0	7	18	117	45	11	2
5)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 된 상의	2	5	21	92	51	19	9
13) 상의 밑으로 넣은 하의	2	7	27	112	33	12	7
4)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6	11	39	122	18	3	1
7)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6	14	53	100	19	5	3

의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여중생들의 실제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의 관계를 표 4.에 나타난 것으로 살펴보면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는 + 값이 커서 착용하기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용하지 못하는 의복 형태로서 신체밀착이나 노출이 큰 의복형태에 대해 착의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는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나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0점에 가까운 것으로 희망여부와 실제 착용여부가 일치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중생들의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의 관계는 대부분 희망여부와 실제착용여부가 같았다. 그리고 몸통이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나 다리의 신체면 노출이 큰 짧은 길이의 스커트 등에 대해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의와 몸통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의 경우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나 실제로 착용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여대생들의 특징과 유사하며 정도차이에서 실제로 작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여중생의 신체부위 인식도와 실제 착의 의복형태의 상관관계

여중생들의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 신체 각 부위의 인식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표 5. 에 제시하였다.

여중생들의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 신체 각 부위의 인식도와와의 상관계수는 -.334에서 .279까지의 분포를 보여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상관이 조금 있다는 수준이다.

상관이 있는 의복형태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몸통 상부의 밀착과 노출이 큰 의복형태는 상반신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 둘레, 위팔둘레, 넓적다리 둘레, 체중 등의 신체 둘레와 너비부위인식과 상관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반신의 밀착과 노출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넓적다리둘레 등의 신체인식과 상관을 이루었다. 특히 상반신에서는 어깨너비, 허리둘레, 위팔둘레, 그리고 하반신에서는 넓적다리 둘레의 신체인식이 의복의 형태와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 값을 나타내 크고 굵게 인식할수록 밀착되거나 노출되는 의복을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 값을 나타내는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는 어깨너비가 넓을수록 허리둘레, 배 둘레 등이 굵을수록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리길이 길다고 인식할수록 다리 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 반바지, 어깨가 넓어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등을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중생들은 신체를 인식하여 의복을 착의하는 인식수준은 아직은 아주 낮으나 둘레나 너비, 체중 등을 인식하는 경향이 대학생들에 비해 낮으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키나 다리길이 등의 길이 항목보다 둘레항목들이 다양한 의복형태와 상관을 갖는 것은 길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방법의 출현과 신체 발달상 충실기에 해당하는 이시기의 여중생들이 변화하는 둘레치수를 더 의식하기 때문으로도 보아진다.

표 5. 실제착의 의복형태와 신체 부위 인식도와의 상관관계

의복형태	목길이	어깨너비	어깨경사	가슴둘레	가슴크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넓적다리둘레	다리길이	체중
4)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207*	
6) 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212*	-.249**	-.221*			-.231*			-.219*			-.206*
7)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239**				.279*						
8)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					-.211*				-.200*			
9)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196**		-.201*		-.321*	-2.67*		-.334*			-.305*
10) 허리부분 전 후길이의 짧은 상의						-.241*						-.216
11)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										.211*		
12) 몸통하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의				-.200*								
14) 밑위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는 슬랙스										-.294*		
15)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										-.286*		-.237*
16)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반바지										-.270*	.280**	-.229*
17)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랙스						-.209*			-.212*			-.210*
18) 다리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랙스								-.237**				

* p<.05, **p<.01, ***p<.001

4. 여중생의 수척/비만 신체인식유형에 따른 실제 착의의복형태

2) 여중생의 수척/비만 신체인식유형별 착의의복형태의 차이

1) 수척/비만 인식

여중생들의 객관적인 수척/비만 분류에 의한 집단별로 주관적 수척/비만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 과 같다. 객관적으로 수척/비만 분류를 할 때 보통 Röhler 지수 150 이상을 비만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위 25%를 비만집단으로 하위 25%를 수척집단으로 중간집단을 평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6. 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수척집단으로 분류되어 비만하지 않다고 판정된 개인에서도 자신의 비만정도가 중간집단과 비만 집단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25.4% 존재하고 있으며 객관적 평균집단에서는 25.7 %가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된 비만정도 이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중생들의 객관적, 주관적 수척/비만분류별로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과 같았다.

먼저, 여중생들의 객관적 수척/비만 분류별 실제 착용의복형태의 착의빈도 차이를 살펴보면, 팔, 어깨, 가슴부위의 피부노출과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이 큰 상의의 의복형태와 길이가 짧아 다리의 피부가 노출되는 하의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파임이 큰 목둘레의 상의나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하는 상의, 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등의 착의는 평균집단이 수척집단이나 비만집단에 비해 더 자주 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허리 전·후 길이의 짧은 상의는 수척집단이 평균집단이나 비만집단에 비해 더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의의 경우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와 반바지를 수

표 6. 주관적 비만집단 과 객관적 비만집단의 교차표

구 분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			전 체
		수척집단	중간집단	비만집단	
객관적인 수척/비만분류	수척집단 112>Röhrer	74.5%(41)	21.8%(12)	3.6%(2)	25.2%(55)
	평균집단 112=<Röhrer<=135	23.9%(26)	51.4%(55)	25.7%(28)	50.0%(109)
	비만집단 Röhrer>135		14.8%(8)	85.2%(46)	24.8%(54)
전 체		30.7%(67)	34.4%(75)	34.9%(76)	100.0%(218)

척집단이 평균집단이나 비만집단에 비해 더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 분류에 의한 집단간에서는 실제착의 의복형태가 상의나 하의 모두 신체를 노출하거나 밀착하는 의복형태에 있어 수척집단이 비만집단에 비해 더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형태는 실제로 여중생들의 착용빈도가 낮은 의복 형태였다.

다음으로 여중생들의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에 의한 집단간의 실제착의의복형태차이는 객관적 분류에 의한 집단간에서와 유사하게 상체와 하체의 노출, 밀착하는 의복스타일에 있어 비만집단의 경우 수척집단에 비해 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수척/비만 분류와 달리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 목이나 어깨를 드러내는 의복형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와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렉스에 있어 비만집단이 수척집단에 비해 착의 빈도가 낮은 의복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중생들이 목길이와 어깨너비, 각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가 보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표 2.)과 객관적 수척/비만 분류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실제로 비만 정도에 따라 착의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만 주관적으로 의식하는 정도가 낮은 신체부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팔의 신체면 노출과 다리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은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집단간의 차이만 나타나 여중생들이 신체의식도가 높은 신체부위이며 주관적 신체의식에 의해 실제 착의 빈도가 결정되는 의복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7. 수척/비만분류에 따른 실제 착용의복형태의 비교

착의 의복형태	객관적 수척/비만분류				주관적 수척/비만분류			
	수척	중간	비만	F-value	수척	중간	비만	F-value
2) 파임이 큰 목둘레의 상의	AB 2.68	A 2.89	B 2.41	3.702*				
3)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	AB 1.82	A 1.92	B 1.50	3.537*				
6) 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A 2.57	A 2.46	B 1.98	4.399*	A 2.58	A 2.56	B 2.01	6.785***
8)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					A 2.58	A 2.59	B 2.16	3.599*
9)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A 2.89	AB 2.55	B 2.24	4.024*	A 2.92	B 2.53	B 2.22	7.538***
10) 허리부분 전 후길이의 짧은 상의	A 3.23	B 2.77	B 2.41	6.064**	A 3.06	AB 2.78	B 2.44	5.477**
15)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킨	A 2.02	AB 1.72	B 1.46	4.279*	A 2.00	AB 1.75	B 1.48	5.538**
16)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반바지	A 2.16	AB 1.90	B 1.63	3.299*	A 2.19	A 1.98	B 1.58	7.236***
17)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렉스					A 2.16	AB 1.85	B 1.66	5.210**

* p<.05 ** p<.01 ***p<.001 A, AB, B는 Duncan-test 결과, A는 B보다 더 자주 착용

이와 같이 여중생들의 신체의 수척/비만 분류별 실제착의 의복형태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피부가 노출되거나 밀착되어 실루엣이 노출되는 상의와 하의의 착용빈도에 있어서 비만집단이 수척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체면 및 신체 실루엣을 은폐하는 의복형태의 착용빈도의 차이는 수척/비만 분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목, 어깨부위의 노출형 의복형태의 착의는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객관적 수척/비만 분류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목, 어깨 노출형 의복형태의 착의는 실제체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팔의 신체면 노출과 다리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은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집단간의 차이만 나타나 여중생들이 신체의식도가 높은 신체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중생들의 신체부위 인식에 따른 착의 의복형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신체크기 인식과 신체만족도, 희망 착의의복형태, 실제착의 의복형태를 고찰하였으며, 수척/비만정도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간 착의 행동의 차이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중생들의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랫배, 엉덩이둘레, 다리굵기, 체중 등 상반신보다 하반신에 대해 굵다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통보다는 위 팔둘레나 다리굵기 등 사지부에 대해 더 굵다고 인식하였으며 만족도도 낮았다. 그리고 보통이거나 잘록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여중생들의 신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여중생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형태는 주로 상의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밀착여부에 관계없이 착용하며 슬랙스는 밀착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여유가 많은 긴 슬랙스를 실제로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특성과 유행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3. 여중생들이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는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 대부분 비슷하였으며, 피부노출이 심한

상의와 피부가 크게 노출되거나 밀착되는 하의의 의복형태의 착의를 희망하지 않았다.

4. 여중생들의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희망착의 의복형태의 관계는 대부분 희망여부와 실제착용여부가 같았다. 그러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몸통이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와 다리의 피부노출이 큰 짧은 길이의 스커트 등에 대해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의와 몸통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의 경우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나 실제로 착의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여대생들의 착의 특징과 유사하였으며 정도차이에서 실제로 작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여중생들의 신체부위의 크기 인식과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와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조금 낮았다.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몸통상하부와 다리의 피부노출이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이 되는 의복형태는 너비, 둘레항목 및 체중 항목사이에서 주로 부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항목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중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굵다/크다' 라고 인식할수록 노출의복형태의 착의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길다'라고 인식할수록 밀착 노출형 의복형태를 착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여중생들의 신체의 수척/비만 분류별 실제착의 의복형태의 차이는 피부가 노출되거나 밀착되어 실루엣이 노출되는 상의와 하의의 착용빈도에 있어서 비만집단이 수척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면 및 신체 실루엣을 은폐하는 의복형태의 착용빈도의 차이는 수척/비만 분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여중생들의 목, 어깨부위의 노출형 의복형태의 착의는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객관적 수척/비만 분류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목, 어깨 노출형 의복형태의 착의는 실제체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팔의 피부노출과 다리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은 주관적 수척/비만 분류집단간의 차이만 나타나 여중생들이 신체의식도가 높은 신체부위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중생들은 여대생들과는 달리 실제착의하는 의복형태와 희망하는 의복형태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여

대생에 비해 신체인식과 실제착의하는 의복형태의 관계도 낮았다. 그래도 상의와 하의 모두 파부를 직접노출하거나 실루엣을 노출하는 의복형태는 신체부위의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 중학생들은 목과 어깨의 신체인식은 낮은 반면 팔다리 등의 노출은 주관적인 신체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위였다. 따라서 상의와 하의의 디자인 개발 시 체형에 따른 디자인을 달리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 기준의 Rohrer 지수를 사용하지 않아 위의 내용을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권기덕(1995). 신체상에 관한 연구-개념과 평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회지*, 16(3), 23-47.

김수영, 원장원(1996), 신체 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17(6), 408-414.

김은경, 남혜원, 박영심, 명춘옥, 이기완(2004), *생활주기 영양학*, 신광출판사, 234-239.

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혜원(1999),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및 외모관리 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생활과학연구지*, 20-36.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박우미(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pp.736-747.

박우미, 고유미. (199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 행동과의 관계 연구-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3, 105-124.

박재경, 남윤자. (1999),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전경숙(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52(3), pp.75-85.

정옥임,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993), pp. 153-162.

정재은,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

지가 의복추구태에 미치는 영향-청소년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한상철(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교유관계 및 가족 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5(3), 45-62.

홍은경, 박샛별, 신영선, 박혜순(1997), 일부 도시 청소년 여학생들의 신체상의 인지와 체중조절 행태, *대한가정학회지*, 18(7), 714-721.

Cash, T.F. & Brown, T.A (1987), Body imag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review of the Literature. *Behavior Modification*, 11, 487-521.

Douty, H.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Labat K.L. & DeLong M.R. (1990), Body ca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5-203.

Marble H.M., Balance W. &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907-911.

Muth, J. L. & Cash, T. F. (1997), Body-Image Attitudes : What Difference Does Gender Mak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6), 1438-1453.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Rudd N. A. & Lennon S. J. (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9(3), 120-133.

Williams J. M. and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ning and Body Ima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2), 129-150.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여중생의 신체부위 크기인식이 실제 착의 의복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신체크기 인식과 신체만족도, 희망 착의의복형태, 실제착의 의복형태를 고찰하였으며, 수척/비만정도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간 착의 의복형태의 차이도 고찰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광주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학생 219 명이었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결과분석은 Window SPSS 10.0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중생들은 상반신보다 아랫배돌출, 엉덩이, 다리굵기, 체중 등의 하반신을, 그리고 몸통보다는 사지부를 굵게 인식하였으며 굵게 인식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다.
2. 여중생들은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를 실제로 착의하였다. 실제로 착용하거나 착용을 희망하는 상의의 의복형태는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밀착여부에 관계없는 형태였으며, 하의의 의복형태는 밀착되거나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여유가 많은 긴 슬랙스형태였다.
3. 여중생들은 신체크기를 인식하여 의복형태를 결정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여중생들은 신체부위의 피부노출이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이 큰 의복형태를 들레와 너비를 굵거나 크게 인식할수록 착용하지 않았으며 길이를 길게 인식할수록 더 착용하였다.
4. 비만집단에 속하는 여중생들은 피부가 직접 노출되거나 밀착되어 실루엣이 노출되는 상의와 하의를 수척집단보다 덜 착용하였다. 그러나 여중생들은 수척/비만 분류와 관계없이 피부와 실루엣을 은폐하는 의복형태는 모두 착용하였다. 그리고 여중생들은 목, 어깨부위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 자신이 인지하는 체형보다 객관적인 실제체형을 고려하였으며 반면, 팔의 피부노출과 다리의 밀착에 의한 실루엣 노출은 실제체형보다 자신이 인지하는 체형을 고려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05년 9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10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20일